

무의식의 창조성에 관한 하나의 고찰: 일련의 꿈을 중심으로

김 덕 규*

국문초록

인류는 재난(코로나, 전쟁, 지진 등)으로 파괴(혼돈)에 직면하였고, 새로운 복원을 기다리고 있다. 문명과 개체에게 있어서 창조 혹은 창조성은 정신적 발전에 필수적이다. 새로운 의식의 입장과 태도, 실재에 대한 새로운 적응이 인간 정신의 심층에서 절실히 요구될 때, 창조성은 한 개체를 갱신시키는 동인이다. 본 소고는 일련의 네 개의 꿈을 해석하면서, 꿈의 메시지가 제시하는 창조성의 본성과 특징에 대하여 탐색한 결과물이다. 먼저 동서양의 종교와 신화, 역사에서 창조성의 정의와 형태를 탐색하였다. 서양신화는 신으로부터 발화되는 창조 혹은 창조성에 대하여 언급하는 반면에, 고대 중국에서는 도의 움직임에 의한,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창조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동서양에서 창조는 형태적으로 무로부터의 창조 혹은 질료로부터 창조, 모체로부터 해체를 통한 창조 등이 있는데, 이는 심리학적으로 창조성 혹은 창조는 무한한 잠재력과 창조력의 모판인 무의식에서 기원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꿈의 통찰을 따라서 창조성의 특성을 기술하였고, 이는 초월적 기능과 ‘준거틀을 넘어서기’, 즉 초법성향을 통하여 창조성이 일어남을 살펴보았다. 셋째로, 무의식의 창조성은 재생을 목적으로 하며, 집단과 개인 안에서 자기 원형상의 갱신을 추동하는 것임을 탐색하였다. 궁극적으로 무의식의 창조성은 전

접수일 : 2023년 8월 24일 / 심사완료 : 2023년 10월 30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11월 16일

*융심리학 연구소 심리치료센터

Address for correspondence: Dukkyu Kim, Th.M., The Center for Jungian Psychology, 4F, 482 Ogeum-ro, Songpa-gu, Seoul 05772, Korea

Tel: +82-2-406-1192, E-mail: k-dukkyu@hanmail.net

체정신의 목표이자 전체가 되어가는 개성화를 지향한다. 무의식의 창조성을 실현하는 일은 두 번째 창조자로서 인간의 숙명이라 할 수 있다.

중심 단어 : 창조성; 창조; 무의식; 원형; 초월적 기능; 초법성향; 재생; 개성화.

들어가는 말

코로나와 전쟁, 지진으로 인하여 인류는 엄청난 파괴성에 직면하였고, 그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통상적으로 문명의 발전과 진보는 파괴(혼돈과 무질서)가 발생한 후에 창조가 일어난다. 이런 창조성은 집단뿐 아니라 개체에서도 정신적 발전에 필수적이다. 집단과 개체에 있어서 진보와 발달을 추동하는 실제적인 힘은 창조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모든 민족과 다양한 종교, 문명의 발전에서 나타나는 창조 또는 창조성과 관련한 주제는 인간과 창조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제시한다.¹⁾ 심리치료에서도 새로운 의식의 입장과 태도 또는 실재에 대한 새로운 적응이 심층에서 절실히 요구될 때, 창조성은 한 개체를 갱신시키는 동인이라 할 수 있다.

C.G. 융은 창조성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다섯 가지 주요 본능적 요소 그룹(배고픔, 성욕, 활동, 반성, 창조성) 중에 하나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본능은 그 자체로 창조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직된 트랙(tracts)의 체계이며, 무한 반복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오랜 시간의 과정에서 자연이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데 성공하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특유한 힘을 지니고 있다. 창조적 본능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적어도 본능처럼 역동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²⁾ 이는 창조성이 인간 고유의 본능적 요소이며, 본능이 보수적이고 강박적이지만, 또한 그 본능에 반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역설적 특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창조성’은 인간 정신의 고유한 본능적 요소라 할 수 있지만, 명료하게 그 자체를 정의하고, 그 과정의 불가해한 특성 때문에 해명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1) 창조신화를 인간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의식화 과정의 모델로서 상정한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의 《창조신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창조신화를 참고하라. Von Franz ML, 김현진(역) (2019): 《창조신화》. 한국융연구원, 서울.

2) Jung CG (1969): CW8,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s244-246.

최근 5개월간 필자에게 큰 괴로움은 지루함과 권태였다.³⁾ 이런 지루함에 대한 하나의 일격은 ‘무의식의 창조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제안받은 것이었다. ‘창조성’이란 주제 자체만으로 엄청난 무거움과 모호함을 느꼈기 때문에, 발표를 정중하게 거절하고자 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무의식의 소리를 기다려 보고 수락 여부를 잠시 미루었다. 그런 제안 후 하나의 꿈을 꾸었지만, 꿈의 목적을 진지하게 살피기보다 과제를 피하려는 자아의 태도로 인하여 창조성에 관한 주제를 다룰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그런데 뒤따르는 꿈에서 창조성의 독특한 본성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그리고 연이은 두 개의 꿈도 창조성을 설명하는 듯한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일련의 꿈을 통하여 무의식의 메시지는 창조성에 관한 글을 쓸 것을 제시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필자는 이 소고에서 일련의 네 개의 꿈을 통하여 드러난 무의식의 창조성에 국한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는 창조성에 대한 정의와 역사적 문제를 논의하고, 무의식의 창조성과 초월적 기능, 재생의식과 개성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창조성에 대한 하나의 정의와 역사적 고찰

필자는 학술대회 발표를 제안받고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한 남성의 힘 있는 목소리가 들린다. “박스를 정리해라.”

나는 이사를 한 것 같고, 물건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넓은 마당에 엄청나게 많은 박스가 쌓여 있다. 그것은 모두 책이 담긴 박스였다. 나는 필수적인 책들은 남겨두고, 아이들의 그림책 같은 것은 모두 버리기로 결정하고 분류하려고 한다.

꿈속에서 한 남성의 목소리는 자기의 목소리, 즉 신의 소리(vox Dei)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는 “흔히 절대 권위적인 특성을 지니며, 또한 대개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한다.”⁴⁾ 이 권위 있는 목소리는 삶의 방향과 질서가 필요하

3) 창조신화에서 신들의 지루함과 외로움, 불안은 창조의 동인이다. Von Franz ML, 김현진(역) (2019): 앞의 책, pp166-211.

4)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2b): C.G. 융 기본저작집 제5권,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숲, 서울, p247.

고 운명을 이행해야 할 때, 수행할 과제를 부과한다. 꿈의 자아가 이사한 상황은 새로운 삶의 태도와 적응방식, 이전과 다른 정신적 구조적 틀을 수립하고 있는 전환과정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행을 위한 과제는 오랜 세월 축적된 집단정신의 산물인 수많은 책들 중에 전체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들을 분류해서 정리하고, 유치하고 순진한 유아적 태도를 의미하는 아이들의 책은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그림책들은 창조적인 공상을 구체화한 산물로 원형상을 표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꿈에서 꿈의 자아가 아이들의 전유물인 그림책을 정리하려는 태도는 유치함과 순진무구함이자, 미발달된 측면을 버리는 것일 수 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박스 안에 든 책은 지적인 방식의 산물로 지성적인 입장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논란의 여지는 꿈의 목소리가 정리하라고 한 것이 과연 아이들의 그림책일지는 의문으로 남는다.⁵⁾ 하지만 이 꿈의 자아의 입장을 견지하여, 무의식의 창조성에 대한 논의는 오랜 세월 축적된 집단정신의 보고를 정리하는 작업, 즉 창조성에 대한 정의와 그 역사적 문제를 고찰하는 것으로 출발하고자 한다.

‘창조’란 사전적 의미에서 ‘새로운 것을 처음 만들어냄’ 또는 ‘조물주가 우주를 처음 만들’을 의미한다. 창조성은 ‘창조하는 성질 또는 특성’을 가리킨다.⁶⁾ 서양에서 ‘창조성(creativity)’이란 단어는 ‘창조하다(to create)’의 명사형으로, 라틴어, 크레아레(creare, 만들거나 자라는 것)에서 유래한다. 영어로 ‘창조’(creation)는 ‘어떤 것을 존재하게 하는 행동이나 과정’ 또는 ‘신의 행위로 간주될 때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중적 의미와는 달리 현대의 사전에서 창조성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새로운 방법이나 장치, 새로운 예술적 대상이나 형식 등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실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⁷⁾ ‘창조’에서 기인한 ‘창조성’을 정의한다면, 창조성에는 ‘새로움’과 ‘신

5) 여기에서 꿈의 자아는 사고 기능에 매달려, 아이들의 창조적 산물의 직관과 감정 기능을 무시한 채 꿈의 목소리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계속되는 세 번째 꿈에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부분에서 무의식은 의식의 입장을 교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6) 한자로 창조(創造)는 ‘창(創)’은 ‘비롯하다’, ‘시작하다’, ‘다치다’, ‘징계하다’를 의미하며, ‘조(造)’는 ‘짓다’, ‘만들다’, ‘저술하다’, ‘세우다’, ‘성취하다’는 뜻을 지닌다. 한자의 단어 용례는 부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7) 브래테니카 백과사전의 정의. 캠브리지 사전에서는 창조성을 ‘독창적이고 특이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거나 새롭거나 상상력이 풍부한 것을 만드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이런 정의는 다분히 현대적인 의미에서 인간에게 있는 어떤 특정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 작업'이란 두 요소가 공통으로 드러난다.

서양에서 '창조성'이란 개념은 근대적 개념의 단어이다. 창조는 근대 이전에는 인간의 작업이 아닌 신의 유일한 작업으로 고려되었다.⁸⁾ 이집트의 창조신화는 헬리오폴리스(Heliopolis: 태양의 도시, 이집트어로 '유누[Iunul]), 멤피스(Memphis), 그리고 헤르모폴리스(Hermopolis: 8개의 마을, 고대 이집트어로 '케메누', '크문')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기원전 3000년 전 헬리오폴리스의 창조신화에서는 태초에 흑암 속에 잠잠하고 무한한 바다, 즉 태초의 물의 상태인 눈(Nun) 신이 있었다. 이런 태초의 물로부터 창조신, 아툼(Atum)이 솟아올라 천지를 창조하였다. 아툼이 신들을 탄생시킨 창조행위는 피라미드 문서에서 자위행위와 침 빨는(입으로 빨는) 행위를 통하여 일어난다.⁹⁾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경계에 위치한 멤피스의 수호신인 프타(Ptah)는 모든 신들과 전 우주를 녹로 위에서 창조했다. 프타는 심장(생각)과 혀가 막강한 신으로, 그를 통해 모든 심장은 생명을 얻고 사고를 하며, 신들은 그의 입에 있는 치아이며 입술

8) 모든 문명의 창조신화나 창조성에 대한 내용은 주된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극히 방대한 내용을 지면상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유럽 문명의 기원인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스문명, 기독교문명에 창조의 문제를 간략히 진술하고, 동양에서 인도문명과 중국문명에서 창조의 문제에 국한하여 간략히 진술하고자 한다. 신화와 종교에서 기술한 내용도 창조에 관련한 간략한 심리학적 이해에 국한하고자 한다. 그리스 철학자들과 중국 도가사상의 창조성에 대한 선행적 이해를 위해 Niu W, Sternberg RJ (2006): "The Philosophical Roots of Western and Eastern Conceptions of Creativity", *Journal of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Psychology*, Vol.26. Pace University, NY와 Weiner RP (2000): *Creativity and Beyond: Cultures, Values, and Chang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의 도움을 받았다.

9) "그(아툼)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사정함으로써/슈(Shu)와 테프누트(Tefnut)의 쌍둥이를 낳았다(피라미드 문서 제 527주문)." "아툼은 슈를 뱉어냈고 테프누트를 토해냈다(피라미드 문서 제600주문)." "나는 슈를 재채기를 통해 탄생시켰다./나는 테프누트를 뱉어냈다./다음으로 슈와 테프누트는 게브(Geb)와 누트(Nut)를 생산했다./다음으로 게브와 누트는 오시리스, 셋트, 이시스, 네프티스를 낳았다./그들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주민들을 생산했다(피라미드 문서, 제 527주문)." 신화아카데미 (2001): 《세계의 창조 신화》, 동방미디어, 서울, pp30-32.

이런 자위행위는 신의 외로움과 권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창조신화에서 나타나는 좌절감과 불안, 고독, 권태감은 아니마의 고통이라 할 수 있다. 인간에서 성과 창조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 Von Franz ML, 김현진(역) (2019): *삶의 책*, pp170-171, p200. 가끔 심각한 자위행위나 성적 탐닉으로 인하여 치료실을 젊은 남성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대개 많은 잉여에너지를 쏟아놓아 과부하 상태에 있으며, 이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때 성행위로 대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기도 하다. 그의 명령에 따라 신들이 나온다.¹⁰⁾ 프타의 입의 말씀을 따라서 신들이 창조되었다. 이러한 신화는 신의 창조행위가 신들과 만물을 생성시키는 창조성의 근원임을 제시한다.

바빌로니아 창조신화로 알려진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 EE)에는 메소포타미아의 세계관에 대한 많은 자료를 제시한다. 우주는 자연 안에 내재된 신들로 시작하여 후에 마르дук(Marduk) 신에 의해 창조된다. 일곱 개의 토판 문서로 구성된 EE는 창조에 대하여 제1토판과 제5토판에서 잠깐 언급하고 나머지는 마르дук 신의 성장과정과 혼돈의 모성신인 티아마트(Tiamat)와의 전쟁과 승리, 승리 후 마르дук 신에 대한 50개의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의 시원은 지하의 담수에 내재한 압수(Apsu)와 바다의 염재에 내재한 모체인 티아맛(Tiamat)이 한데 엉켜 있는 물의 혼돈으로 나타난다. 물이 엉키면서 라흐무(Lahmu)와 라하무(Lahamu)가 생겨났고, 그들이 하늘의 둥근 자리인 안샤르(Anshar)와 땅의 둥근 자리인 키샤르(Kishar)를 낳았다. 이 둘은 아누(Anu, 아카드어로 아눔, 하늘의 신)를 낳았고, 아누는 누딤무드(Nudimmud)를 낳았는데, 이는 수메르어로 엔키(Enki)와 아카드어로 에어(Ea)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¹¹⁾ 태고의 신과 젊은 신들의 싸움이 소개되고, 티아맛의 공격 위협을 받은 신들은 마르дук에게 자신들을 보호할 것을 요청하고, 마르дук은 그 대가로 신들의 권력을 요구한다. 티아맛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마르дук은 티아맛을 둘로 나누고 반으로 하늘을 만들고, 그녀의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빗장과 호위병을 배치하였다. 다음으로 성좌를 만들고, 달력을 정비하고, 북극성을 배치하였다. 계속적으로 티아맛의 머리 위에 산을 쌓았고, 눈을 뚫어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의 근원이 되도록 하였다.¹²⁾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후, 마르дук은 티아맛을 선동한 킹구의 피로 인간을 창조한다.¹³⁾ 티아맛의 살해된 시신으로 인한 세

10) Von Franz ML, 김현진(역) (2019): 앞의 책, pp126-128.

11) 신화아카데미 (2001): 앞의 책, pp59-62, EE, 제1토판, 1-20.

12) 신화아카데미 (2001): 앞의 책, pp64-85, EE, 제1토판 87, 제2토판 129, 제4토판.

13) 신화아카데미 (2001): 앞의 책, pp88-89, EE, 제6토판 20-37, 피는 고대 근동의 인간 창조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아카드어, 다무(Damu)는 히브리 성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모양(테무트, תמונת)을 따라’로 번역된 단어의 어간이 d-m이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의 피와 같이’로 해석이 가능하다. 엘리야데는 어머니 여신 티아맛의 죽은 몸인 쿠부(Kubu)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한다. Von Franz ML, 김현진(역) (2019): 앞의 책, pp120-130.

계 창조는 창조가 하나의 희생행위임을 시사한다. 창조의 선행적 조건은 이전의 모체(모성상)에 대한 파괴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스 신들의 계보를 기술한 헤시오도스(Hesiodos, 기원전 740?-670?)는 《신통기(Theogony)》에서 공허와 빈 공간인 카오스(혼돈)와 가이아로부터 우주의 탄생, 신들의 탄생에 대해 묘사한다.¹⁴⁾ 최초의 근원, 카오스로부터 어둠과 밤이 생성되고, 밤은 죽음, 잠, 불화, 늡음, 싸움이 만들어진다. 이는 혼돈, 즉 무로부터 창조와 신들의 행위를 통하여 창조가 일어남을 제시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 천문학, 우주론에 조예가 깊은 남이탈리아 출신의 정치가인 티마이오스(Timaios)의 입을 빌려서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하여 “생성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장인, 즉 데미우르고스(Demiourgos, 창조신)에 의해 이데아의 모형(Paradeigma)을 통하여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우주는 모상(eikon)”¹⁵⁾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법률》에서 시인의 위대한 작품은 전적으로 신성한 뮤즈의 발명이라고 주장한다.¹⁶⁾ 그는 《국가론》에서 모방이 치명적이고, 청중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시인 추방론을 주장한다. 그는 소크라테스와 글라우콘의 대화에서 신이 관여한 것으로서 창조되는 최초의 침대가 있고, 침대를 만드는 가구장이는 이데아의 침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눈에 비친 침대를 만드는 모방자에 불과하며, 침대를 그리는 화가는 사물에 외관만을 창조하는 자일 뿐이라고 한다.¹⁷⁾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으며, 이데아의 모형을 모방하는 것이며, 창조성은 신의 영감을 통하여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에 의한 창조 혹은 신의 영감을 받은 창조성과는 달리 시인의 고유한 본성을 통해 작품이 창조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시는 인간의 선천적인 원인 두 가지에서 생겨난 듯하다. 인간에게는 어릴 때부터 이미 모방 본능이 있다. … 선율과 리듬도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본능적

14) 헤시오도스, 김원익(역) (2022): 《신통기》, 민음사, 서울, pp27-37.

15) 플라톤, 천병희(역) (2019): 《플라톤 전집 V: 테아이테토스, 필레보스, 티마이오스, 크리티아스, 파르메니데스》, 도서출판 숲, 파주, pp325-327.

16) “시인이 무사 여신(muse)의 세 발 술에 앉으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 저절로 솟아오르는 샘과 같아진다고 합니다.” 플라톤, 천병희(역) (2020): 《플라톤 전집 VI: 법률》, 도서출판 숲, 파주, p204.

17) 플라톤, 이환(역) (2015): 《국가론》, 돌출새길, 서울, pp262-264.

으로 아주 강하게 끌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즉흥적으로 모방했다가,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시가 출현한 것이다.”¹⁸⁾ 그는 모방을 긍정적 가치로 두고 있으며, 창조성은 인간 안에 내재된 본능적 요소임을 염두해 두고 있다. 이는 심층심리학의 입장과도 유사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유대-기독교 전통에서는 창세기 1장 1-2절¹⁹⁾을 근거로 ‘무로부터 창조’(Creatio ex nihilo)를 주장하였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다’는 히브리어 ‘바라’(בָּרָא)로, 무에서 유에로의 완전한 신적 창조행위를 가리킨다. 또한 히브리어로 ‘만들다’, ‘아사’(עָשָׂה)는 이미 창조된 물질로 다른 물질, 혹은 더 나은 물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²⁰⁾ 인간을 창조할 때 사용한 히브리어, ‘야찰’(יָצַח)은 ‘짓다’로 번역된다.²¹⁾ 이는 ‘아사’와 비슷한 용례로 사용된다. 또한 무로부터의 창조 후에 신은 그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한다.²²⁾ 첫 번째 창조기사는 ‘엘로힘’(하나님, אֱלֹהִים)에 의한 창조로, 무로부터 창조와 말씀으로부터 창조를 언급한다면, 두 번째 창조기사는 ‘야훼 혹은 여호와’(יְהוָה)에 의한 창조로 야훼가 흙으로부터의 인간 창조, 즉 질료로부터의 창조를 언급한다. 기원전 1세기에 쓰여진 외경, 마카베오후서 7장 28절²⁴⁾에서 ‘무로부터의 창조’가 처음 언급되는데, 이후로 초대교부들은 교리적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절대무로부터 무형의 질료의 창조를 주장하였다.²⁵⁾

기독교 정신세계가 지배하던 중세 시대까지는 서구 유럽 사회에서 ‘창조성’은 전적으로 신의 고유한 특성이자 신의 작업이었다. 그러나 르네상스와 대분열의 시기(Great Schism)는 ‘신의 정신’으로 이해해왔던 천동설적 세계관이 퇴

18) 아리스토텔레스, 박문재(역) (2021):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현대지성, 서울, pp18-19.

19)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세기 1:1-2, 개역개정).”

20) 창세기 1:16, 25, 26.

21) 창세기 2:7, 9.

22)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창세기 2:1).” 히브리어 ‘이르다’(아마르, אָמַר)는 6일간의 창조에서 10회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신적 창조력의 근원이 신의 말씀임을 드러낸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로고스 Logos)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로고스)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한다.

23) 창세기 1장 1절-2장 3절.

24) “하느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공동번역).”

25) 어거스틴, 선한용(역) (2003): 《성어거스틴의 고백록》, 대한기독교서회, 서울, pp426-427, p507.

색하고, ‘인간의 정신’이 태동하던 때였다. 계통발생적으로 르네상스는 인간의 의식이 비로소 깨어난 시기로 중세까지 ‘신은 누구인가’를 묻던 물음에서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본격화되었고, 모든 예술의 주제가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문장과 화폭에 담아내었던 시기였다. 르네상스 이후 근대에 이르는 집단정신의 변화는 창조성의 주체를 인간으로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의식의 진보는 정신(psyche)이 곧 의식이라는 도식으로 이해되었고, 심리학조차도 ‘의식에 관한 학문’으로 취급하고, 영혼의 실재나 무의식의 주체로서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게 되었다.²⁶⁾

고대 인도의 창조신화는 리그베다(기원전 1200-1000년경) 제10권에 실린 90번째 짝막한 16연으로 이루어진 푸루샤 찬가 또는 푸루샤 수끄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우주적 거인으로 나타난 창조적 주체인 푸루샤²⁷⁾는 자신의 사분의 일을 모든 창조물로 사용하고, 사분의 삼은 천상의 불멸(의 신들)이다. 푸루샤로부터 세계 창조에 사용되는 사분의 일은 ‘비라즈(viraj)’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의 우주적 존재로 다시 나타나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푸루샤가 탄생한다.²⁸⁾ 그의 신체의 모든 조각은 우주의 각 부분이 되는데, 눈은 태양, 마음은 달, 호흡은 바람, 머리는 하늘, 배꼽은 허공, 발은 지구가 되었다(10권 13, 14). 티아맛의 시신으로 세계가 창조된 것처럼 여기에서도 푸루샤의 신체 분할과 희생행위가 곧 창조임을 드러낸다. 이는 기원후 3세기에 문헌에 등장한 중국

26) 이에 대한 더 깊은 논의는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a): C.G.융 기본저작집 제2권, “정신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 고찰”, 《원형과 무의식》, 숲, 서울, pp13-104를 참고하라.

27) 이 태고의 거인 푸루샤는 브라흐마나 문헌에서 창조주로서 전면에 등장하는 프라자빠띠(Prajapati)로 나타나고, 다른 문헌에서는 비슈누(Vishnu)와 동일하다.

28) 푸루샤는 천 개의 머리, 천 개의 눈, 천 개의 다리를 가졌다./그는 땅의 사망을 덮으며, 열 손가락을 넘어섰다(10권 1)/푸루샤만이, 현재의 이 모든 것이며, 과거(존재했던 것)이며 또한 미래(존재해야 할 것)이다./또한 그는 불사(신들)의 지배자이며, 그 불사(신들)은 음식을 통해 성장하는 자이다(10권 2)/이와 같은 것이 그의 위대함이며, 이보다 더 지고함이 푸루샤이다./그의 사분의 일은 모든 창조물들이고, 그의 사분의 삼은 천상의 불멸(의 신들)이다(10권 3)/푸루샤의 사분의 삼은 위로 솟아 올랐고, 그분의 사분의 일은 여기에서 다시 존재하게 되었다./거기에서, 그는, 사망으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으로 퍼져 나갔다(10권 4)/그로부터 비라즈가 탄생했으며, 비라즈로부터 (두번째) 푸루샤가 나왔다./태어났을 때, 그는 뒤쪽(서쪽)과 앞쪽(동쪽)에서 땅에 퍼졌다(10권 5), 신화 아카데미 (2001): “고대 인도의 창조신화와 제의적 이미지 읽기”, 《세계의 창조신화》, 동방미디어, 서울, pp112-123.

의 반고(盤古) 신화²⁹⁾에서 반고가 자신의 몸을 세계 창조를 위한 재료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신화소를 지닌다.³⁰⁾

그러나 고대 중국의 창조신화는 근본적으로 서구의 창조신화와는 달리 신으로부터 발화되는 창조가 아니라 모든 만물은 도에서 비롯되었고,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변화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³¹⁾ 노자는 ‘무명(無名)은 하늘과 땅의 시원이요, 유명(有名)은 만물의 어머니’³²⁾이며, ‘천하만물은 유에서 나오고, 유는 무에서 나오며’,³³⁾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음과 양 둘을 낳고, 음양은 음기와 양기에 다시 충기를 합한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³⁴⁾고 한다. 도가 현상계 배후에서 전 우주의 모든 생성, 변화, 소멸을 주재하는 초월적 운동원인이지만, 그 자체는 생성, 변화, 소멸하지 않는 부동의 동자이다.³⁵⁾ 고대 중국에서 문헌적으로 우주와 우주 현상에 대한 물음이 나타난 것은 굴원(屈原, 기원전 343-290?)의 시, ‘천문(天問)’이다. 하늘과 땅이 형성되기 이전에 아스

29) 반고신화는 삼국시대(기원후 220-280), 오나라 사람 서정어 지은 《삼오역기(三五歷紀)》와 《오운역년기(五運歷年記)》와, 남북조시대 양의 임방이 지은 《술이기(述異記)》를 포함해 대략 7개가 전해져 온다. “천지가 혼돈하여 알과 같았는데, 반고가 그 속에서 태어났다. 일만 팔천년이 지나 천지가 개벽되어, 밝고 맑은 것은 하늘이 되었으며, 어둡고 탁한 것은 땅이 되었다.” 뒤영겨 있던 하늘과 땅이 가라져 나오기 혼돈의 상태인 알이 깨지며 반고가 태어났다.“《삼오역기(三五歷紀)》; 신화아카데미 (2001): 앞의 책, p183.

30) 엘리아데는 창조신화의 유형 중에서 원초적 존재의 자기 해체에 의한 창조로 분류한다. 자발적 자기 희생자인 스칸디나비아 신화의 이미지(Ymir)와 인도 베다의 푸루샤(Purusa)와 중국의 반고, 투쟁 끝에 희생당한 바빌로니아의 티아맛(Tiamat)이 있다. Eliade M (1974): *God, Goddess, and Myths of Creation: A Thematic Source Book of the History of Religions Part I of From Primitive to Zen*, Harper & Row, New York, p83.

31) 주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음양이원론이다. 음양의 대립에서 세계가 출현하고 변화가 생기고, 음양의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발전한다. 음이 모든 형태의 에너지와 활동이 파생되는 무궁무진한 원천이라면, 양은 항상 창조적인 활동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것은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한다.

32) “... 無名 天地之始, 有名 萬物之母, ... (노자도덕경 1장)” 노자, 황병국(역) (2003): 《노자도덕경》, 범우사, 서울, pp23-23.

33) “...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 (노자 도덕경 40장)” 노자, 황병국(역) (2003): 위의 책, pp86-87.

34) “道生一, 一生一, 二生三, 三生萬物, ...” 노자, 황병국(역) (2003): 위의 책, pp88-90.

35) “가득찰다가 비어지고 성했다가 소멸하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저 도는 가득 차게 했다 비게 했다. 하지만, 도 자체는 가득 찼다가 비어지는 일이 없고, 쇠하여 소멸하게 하지만, 도 자체는 쇠하여 소멸하는 일이 없으며, 근본과 말단을 만들어내지만 도 자체는 근본도 말단도 없고, 모았다 흩어지게 하지만 도 자체는 모였다 흩어지는 일이 없다(謂盈虛衰殺彼為盈虛非盈虛, 彼為衰殺非衰殺, 彼為本末非本末, 彼為積散非積散也)”, 장자 외편, 지북유(知北遊). 신화아카데미 (2001): 앞의 책, p165.

레한 상이 있었음을 말하며, 음과 양이 서로 참작하고 교호하여 천지만물이 비롯되고 변화하였고, 또한 하늘은 둥글고 아홉 층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한다.³⁶⁾

노장사상이 주장하는 도 혹은 자연에 의한 창조성은 음양의 움직임이며 상호작용의 특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제시한다. 창조성은 양에 의한 음의 실현과 음에 의한 양의 잠재화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창조적이 되려면, 행동을 위한 잠재력을 보존해야 하고 이 잠재력을 실제로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즉, 무위(無爲)로써 위(爲)를 해야 한다.³⁷⁾ 이런 동양적(중국식)의 창조성은 그 주체를 명확한 신 개념에 두지 않으며, 행위의 주체로서 인간을 능동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동양인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모호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아의식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기에 무의식 속에 자아의식이 있는 상태, 무의식의 배경 속에 자아의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자아의식은 무의식 속에 있는 작은 일부에 해당된다. 동양적 사유는 정신을 단지 의식으로만 보지 않고 무의식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해 왔다. 용은 “내면으로 시선을 던지는 동양인의 심혼적 태도는 세계의 비가시적 본질을 바라보는 데 있어, 이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³⁸⁾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동양적 관조의 조건이다. 동서양의 창조신화를 종합해보면, 창조성은 인간의 의식적 특성이나 산물로 취급되기보다 그 주체는 신(혹은 도)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분석심리학적으로 창조 혹은 창조성은 무의식의 기원을 두고 있다. 개체발달의 과정에서 자아의식은 무의식부터 분화하고 발전한다. 자아란 의식의 중심으로 ‘나’를 표명하고 의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 그 이전까지는 주객이 분리되지 않는 신비적 참여 상태에 있으며, 의식의 미분화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는 아니며, 무의식 속에 잠재적으로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 주변환경과 양육자, 타고난 정신적

36) 신화아카데미 (2001): 앞의 책, 서울, p158. 후기에 쓰인 회남자(淮南子)에서도 비슷한 사상을 보이고 있다. “천지가 아직 형을 갖추지 않았을 때 혼돈하여 정해진 형태가 없었으니, 그러므로 큰 시초라고 부른다. 도는 텅빈 광활함에서 시작하였고 이 텅빈 광활함은 우주를 생하였다. 우주는 기를 생하였고, 그 기는 한계를 지녔다.” 김영식 (2005): 《주희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서울, pp229-230.

37) 리하르트 빌헬름이 보고한 ‘기우사(Rain Maker)’ 이야기는 전형적인 예이다.

38) Jung CG, Wilhelm R, 이유경(역) (2014): 《황금꽃의 비밀》, 문학동네, 파주, p41.

경향에 따라서 의식의 분화 내용은 달라진다. 프로이트가 의식에서 생성된 억압의 산물이 무의식이라고 보았다면, 융은 무의식적 조건에서 의식이 생겨났고, 따라서 무의식으로부터 자아의식이 싹튼 것임을 분명히 한다. 특별히 융은 자아의식이 무의식의 창조적 기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집중하였다.³⁹⁾ “무의식은 잊혀지고, 지나간, 억압된 내용을 담은 그릇이지만, 모든 식역하(識闕下, subliminal)의 과정이 발생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무의식은 아직 의식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약한 감각 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전체 정신적 미래가 성장하는 모체(matrix)이자”⁴⁰⁾ 선천적 구조이다. 인격 형성의 진정한 모체 또는 창조성의 모체는 무의식이라 할 수 있다.

창조성을 실현해가는 가장 대표적인 부류는 예술가이다.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술가의 의식적 산물이라기보다는 예술가를 사로잡은 환상, 즉 집단적 무의식의 이미지이다. 프로이트 학파는 모든 예술가들이 도드라진 유아기 자기성애적 특성을 가진 미발달된 인격이라는 의견을 제기하지만, 모든 창조적인 사람은 이중성이나 모순적 특성들의 합성이어서 개인적인 삶을 지닌 인간 존재이지만, 비개인적인 창조적 과정을 수행하는 자이기도 하다. 예술가는 창조적 작품의 도구이며 그것에 종속되어 있다.”⁴¹⁾ 예술가는 창조적 환상에 사로잡히고 그 환상을 구체화한다. 예술작품의 진정한 주체는 무의식이다. 예술가의 창조성은 무의식에서 기원하며, 무의식은 예술가를 통하여 자신의 창조성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²⁾

39) 이부영 (2003):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파주, pp33-38.

40) Jung CG (1969): CW 8,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709.

41) Jung CG (1971): CW 15, *The Spirit in Man, Art, and Literature*, “On the Relation of Analytical Psychology to Poetry and Psychology and literat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s.97-172.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4) : C.G. 융 기본저작집 제9권, “심리학과 시문학”, 《인간과 문화》, 숲, 서울, pp154-179.

42) C.G.융은 《파우스트》 1부와 2부를 구분하면서, 1부는 심리학적 창작 방식과 2부를 환상적 창작방식이라고 말한다. 심리학적 방식의 소재는 인간 의식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내용으로, 어떤 생활경험, 충격, 열정, 체험으로, 보편적 의식에 잘 알려진 것이며, 환상적 방식의 소재는 낯설고 숨어있는 것으로 인간 이전의 시간의 심연들에서 또는 인간을 넘어서는 빛과 어둠의 세계에서 나오며, 인간 본성이 약하고 무지할 때 굴복할 위험이 있는 근원체험이다. 이 환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집단적 무의식, 즉 의식의 모체와 선형조건을 나타내는 마음의 독특한 선천적 구조의 상이다.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4): 앞의 책, pp158-169.

무의식의 창조성과 초월적 기능

이미 전술한 대로 창조성은 그 과정의 불가해함 때문에 현상학적 측면에서 진술할 수밖에 없다. 이제 무의식의 창조성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무의식의 창조성과 초월적 기능의 관계를 두 번째 꿈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숲의 산책길을 분석가와 함께 걷고 있다. 나는 큰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옆으로 난 길로 간다. 그 길에는 높은 언덕으로 이어지고 그곳에는 관측소가 있고 그 아래에는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다. 그는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강에는 밤이 되면 뱃사공이 배를 타고 나타나 사람들을 강 건너편으로 실어 나른다. 뱃사공은 강을 건너려는 자에게 돈을 받는다. 예전에 뱃사공의 배를 타고 강을 건넜고, 빠르게 강을 건너 나의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러 간 적이 있었다. 그 뱃사공은 돈을 벌기 위해 밤에 나타난다.”

나는 길을 돌아가고 있지만, 이 길이 좋다. 언덕을 조금 오르자 청록색 강물이 흐르고 있다. 언덕 아래로 다리가 보인다.

꿈의 자아는 자신의 첫 분석가와 함께 걷고 있다. 그 분석가는 무의식을 처음으로 안내하고 인도했던 내면의 인격으로 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강은 시간과 생명의 흐름을 상징하며, 일종의 경계를 표상한다. 신화와 종교전통에서 강은 이승과 저승 사이에 가로놓여 있어서 재탄생과 이행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구역으로 나타난다. 일종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를 상징한다. 강 건너기는 어떤 전환과 이행을 위한 경계 영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밤이 되면 뱃사공이 강을 건너려는 자를 위해 나타난다. 밤은 의식의 주도력이 저하되고 무의식이 활성화되는 시간이다. 그때에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고 경계를 넘어서 이행을 돕는 초월적 기능의 인격화인 뱃사공이 등장한다. 이는 무의식의 창조력을 표상한다. 다리와 배는 이행을 위한 구

43) 이 꿈은 개인적으로 융심리학적 영역과 종교적 영역 간의 이행과 전환, 변환을 위한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이 꿈에서 꿈의 자아는 무의식의 창조력을 만날 수 있는 배가 아니라 다리를 이용한다. 다리는 이행과 변환의 상징이지만, 인간이 만든 창조물로, 집단의식을 통하여 제작된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꿈의 자아는 여전히 초월적 기능이 안내하는 무의식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집단의식이 제시하는 길로 가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조적이고 형식적인 틀로, 변환을 위한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뱃삐는 어떤 전환과 변환을 위해 필요한 정신 에너지이며, 자아의식은 이행을 위해서 상응하는 정신 에너지를 지불해야 함을 시사한다.⁴³⁾

경계를 넘어야 하는 강 건너기는 변환과정이다. 그 변환을 위한 초월적 기능의 출현은 창조성의 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초월적 기능은 두 세계(대극)를 연결하며, 두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상징을 창조하여 새로운 이행을 돕는다.⁴⁴⁾ 대극이 접근하여 제3의 것인 초월적 기능이 출현한다. 대극의 갈등과 대립, 의식과 무의식의 움직임은 에너지로 부하된 긴장을 유발하고, 활기를 생성시킨다. 대극들 사이에 매달림으로부터 전진, 존재의 새로운 단계, 즉 새로운 상황을 불러오는 살아있는 탄생이 초월적 기능으로 나타나는 제 3의 것, 창조와 연결된다.⁴⁵⁾

또 다른 의미에서 창조의 본성은 무의식이 경계선을 넘는 현상으로, 준거 틀을 넘어서 물질 혹은 의식 속에 침투해오는 ‘초법성향(Transgressivitaet, transgressivity)⁴⁶⁾’으로 고려할 수 있다.⁴⁷⁾ 융은 이런 원형의 초법성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것들(원형들)이 인과적 과정과 연관되어 있거나, 그 인과적 과정에 의해 ‘운반되어’ 질지라도, 원형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준거 틀을 넘어서는데, 나는 이러한 침해를 ‘초법성향’이라고 이름 붙이고자 한다. 왜냐하면 원형들은 배타적으로 정신적 영역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지 않은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신적 과정과 외부의 물리적 과정의 등가성).”⁴⁸⁾

44) Jung CG (1974): CW 6,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184 & n 250.

45)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C.G. 융. 기본저작집 제2권, 《원형과 무의식》, 숲, 서울, pp362-365.

46) 독일어 ‘Transgressivitaet’는 법을 어기는 성향(위법), 영어로 ‘transgress’는 법률 등을 ‘거역하다’, ‘범하다’, ‘한계를 넘는다’라는 뜻을 지닌다. ‘Rahmen überschreiten’가 ‘저쪽으로 틀을 넘어간다’의 뜻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본다면 ‘Transgressivitaet’는 탈법성, 혹은 초법성향이라 할 수 있다. C.G. 융의 전집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이 단어의 번역에 도움을 주신 이부영(한국 융연구원 원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7) 이런 초법성향에 대한 친절한 논의는 Etter H (2015): “Synchronicity and Transgressivity” [미간행], 2015년 6월 12일 트론티하임(Trondheim) 강연자료에 큰 도움을 받았다.

48) Jung CG (1969): CW 8, *ibid*, para964.

무의식 혹은 정신은 정신적인 것을 넘어서 시공간과 물질 속으로 침투하여 창조성을 실현해간다. 폰 프란츠(Von Franz ML)는 원형과 초법성향에 대하여 “원형은 무엇보다 정신적 개연성(probability)을 대변하지만, 이상하게도 때로 그것은 정신적 등가성뿐 아니라 정신물리적 등가성의 기저를 이룬다. 따라서 용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질이라고 부르는 경험 영역에 원형이 도달하기 때문에, 사이코이드(psychoid)⁴⁹⁾ 특성을 원형 또는 어떤 ‘초법성향’에 귀속시킨다⁵⁰⁾고 말한다. 이런 초법성향은 원형이 활성화되는 상황으로 한계를 넘어서서 물질 세계에 다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비인과적 우연의 의미있는 일치 현상, 즉 동시성 사건이 정신을 넘어 물질 속에 배열된다.

창조성과 초법성향에 대한 적절한 하나의 예시로서 ‘기하학자로서 신’이란 중세의 그림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그림에서 신은 창조행위를 상징하는 컴퍼스를 들고 지구(우주)를 설계하며 창조하고 있다. 그의 발의 한쪽은 사각의 틀을 넘어서 있고, 한발은 사각 틀



그림 1. 기하학자로서 신, 모랄리제(Moralisee) 성서의 앞부분(1220-1230).

49) 이 용어는 ‘정신과 비슷한’ 혹은 ‘정신양’으로 번역하는데, 집단적 무의식의 관조될 수 없는 정신적 특성을 말한다. 어떤 원형은 근본적으로 미지의 것을 표현하지만, 정신과 물질 사이에 경험할 수 있는 연결을 실질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이 용어는 원형의 초월적 특성을 나타낸다.

50) Von Franz ML (1988): *Psyche and Matter*, Shambhala Publication, Boston, p305.

밖에 있다. 사각의 틀은 자연의 법칙이자 준거 틀(한계, 경계 혹은 구조화된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신은 자연의 법칙을 초법하는 성향을 통하여 창조성을 실현한다. 이를 심리학적으로 표명하자면, 원형(특별히 자기 원형)은 준거 틀을 넘어 침투하여 시공간과 물질 속에서 창조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형이 초법성향 혹은 사이코이드 특성으로 시공간과 물질의 범주를 넘어설 때, 비인과적 사건들(모든 사건이 비인과적일 수는 없지만)의 창조적 과정이 일어난다.⁵¹⁾ 한수엘리 에터(Hansueli Etter)는 이런 초법성향을 에너지 개념으로 설명한다.

나의 관점에서 융은 초법성향을 에너지 개념으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초법성향적 현상에서 어떤 것이 이전에는 정신에 국한되었던 영향이 물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의 현상은 물질에서 발생하며, 이것은 정신적 현상과 유사하며, 이는 상징적이고 현실적 수준 모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동일한 원형이 두 현상들을 통해 빛을 발한다. 원형의 에너지 부하는 궁극적으로 병행 이미지로 물질에서 현시됨으로써 ‘준거 틀 넘어서기’로 이끈다. 우리는 정신에서 차단된 에너지가 물질에서 방출되는 것을 발견한다고 말함으로써 이를 볼 수 있으며, 이런 차단된 에너지는 물질 또는 신체에서 파괴적인 방식 혹은 건설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⁵²⁾

원형의 준거 틀 넘어서기, 즉 초법성향적 특성이 물질로 방출되면, 에너지 부하가 일어나고 물질이나 신체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영향은 치유 혹은 질병의 상태로 발현될 수 있다. 신체와 정신의 미묘하고 잔인한 상호작용으로 초월성향은 등장한다.

필자가 본 소고를 쓰기 시작하면서 20대 후반의 남성이 분석을 요청하였다. 분석 동기는 성중독의 해결과 확고한 삶의 의미와 목표 설정에 있었다. 첫 분석 후, 혹시 꿈이 있으면 꿈을 기록하고, 다음 시간에 꿈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첫 만남 이후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고, 다음 회기에 피분석자는 약간

51) 이는 융이 동시성을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개념을 빌어,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창조행위”이라고 말한다. Jung CG (1969): Ibid, para965.

52) Etter H (2015): “Synchronicity and Transgressivity” [미간행].

흥분한 상태에서 꿈을 보고하였다.⁵³⁾

실내 락클라이밍 대회가 있다. 앞에 두 남자 선수들이 잘 해낸다. 다음에 누가 해보겠냐는 사회자의 말에 내가 손을 들었고, 내가 나서게 된다. 장갑을 끼려하는데, 내 손에 비해 장갑이 너무 크다. 그래도 어쨌든 끼고 시작한다. 락클라이밍은 처음이고, 몸도 그리 강하지 않고, 경험도 없지만 한번 해본다. 그런데 생각보다 은근히 잘된다. 앞서 했던 두 사람은 프로선수였다. 그 사람들을 이긴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의 기준으로 되게 잘했고, 뿌듯했다.

락클라이밍이 끝나자 내 옆으로 나비가 날아와서 내 팔에 앉는다. 나비는 엄청나게 크다. 크기가 참새만 하다.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나비는 날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벌린 입안으로 들어온다. 삼키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나비를 먹게 되었다.

피분석자는 나비를 먹는 꿈으로 약간 충격을 받았고 매료되었다. 그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를 먹는 기분이고, 이상하게도 나비 꿈을 꾸고 나서 성적 공상이나 성에 대한 집착이 거의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나비는 영혼(Ψυχή, Psyche)이며, 자율적인 본능이자 변환의 상징이다. 신이 동물이나 곤충의 형태로 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나비는 자기(Self)의 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석상황에서 무의식은 영혼을 동화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피분석자는 정동적인 체험을 통하여 치유적인 힘과 연결되고 있음을 감지했다.⁵⁴⁾ 정신치료과정에서 이런 나비의 꿈은 초월적 기능의 출현으로 내담자의 창조적인 정신 변환을 유도한다.

이미 상술한 대로, 초법성향, 혹은 초월적 기능의 매개가 상징이며, 그것은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의식으로 침투한다. 예술가들의 창조성의 이면에는 원형이 초법성향으로 의식의 문턱을 넘어서서 강력한 심상으로 그들을 매혹시킨다. 예술작품의 주인은 예술가가 아니라 집단적 무의식의 환상이며, 예술가는 그 작품의 도구인 셈이다.

1951년 봄 일흔 다섯의 용은 열병을 앓으면서 자주 침대에 누워있었고, 그 비참

53) 꿈의 인용을 허락해준 피분석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사례와 꿈의 인용에 대하여 피분석자에게 서명 동의를 받았고, 필자가 보관하고 있다.

54) 신경증을 치유하는 것은 신경증만큼 확신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한 상황 중에 짧은 논문(타자로 약 100쪽, ‘옴에의 응답’)을 썼다.⁵⁵⁾ 그는 무의식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을 받아 썼고, 그 일을 마치고 병이 나왔다. 옴은 그 책의 저술에 관해, “나는 내 자신이 완전히 봉사인(奉仕因, causa ministerialis)임을 느꼈다. 그것은 열병을 앓는 동안 갑자기 예기치 않게 나와 마주쳤다. 좋은 싫든 내가 참여하는 신성한 의식의 전개로서 그 내용을 느꼈다”⁵⁶⁾라고 진술했다. 그는 강력한 정동 혹은 영감(신의 의식)에 사로잡혔고, 작품에 봉사함으로써 병에서 치료되었다.

동시대의 시인의 예를 들고자 한다. 시인 김소연의 “수학자의 아침”⁵⁷⁾이란 시는 자신의 꿈을 통하여 강력하게 매혹당한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창작되었다.⁵⁸⁾ 시인은 꿈에서 하루 종일 수학자로 살아야 했고, 누군가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완벽한 구를 만들라는 명령을 했으며, 그런 구를 만들기 위해 애썼지만 만들 수 없어서 조바심내면서 찢찢매다가 깨어났다. 시인은 꿈에서 살아야했던 수학자로서 맞이한 아침에 대하여 착상하였고, 모호한 상태에서 글을 썼다.⁵⁹⁾ 완벽한 구는 전체성의 표상이자, 자기 원형상이라 할 수 있다. 이 꿈의 목적은 꿈꾼 이로 하여금 전체성, 즉 자기화(Self-realization, 자기 실현)를 실현하도록 이끈다. 시에서 삼각형, 회전하는 새장, 이항대립, 원주율의 이미지는 연금술사들의 원의 사각형 만들기와 흡사하다.⁶⁰⁾ 무의식의 강력한 심상은 준거틀을 넘

55) Jung CG (1975): *C.G. Jung Letters*, Vol 2: 1951-1961.

56) Jung CG (1975): *Ibid*, p112.

57) 나 잠깐만 죽을게//삼각형처럼//정지한 사물들의 고요한 그림자를 둘러본다./새장이 뱅글뱅글 움직이기 시작한다//안겨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안겨 있는 사람을 더 꼭 끌어안으며 생각한다//이것은 기억을 상상하는 일이다/눈앞에 기어들어 온 개미를 보는 일이다/살결이 되어버린 겨울이라든가, 남쪽 바다의 남십자가성이라든가 //나 잠깐만 죽을게/단정한 선분처럼//수학자는 눈을 감는다/보이지 않는 사람의 숨을 세기로 한다/들이쉬고 내쉬는 간격의 이항대립 구조를 세기로 한다//숨소리가 고통 소리가 맥박소리가/수학자의 귓전에 함부로 들락거린다/비천한 육체에 깃든 비천한 기쁨에 대해 생각한다./눈물 따위와 한숨 따위를 오래 잊고 살았습니다/잘 살고 있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요/잠깐만 죽을게,/어디서도 목격할 적 없는 온전한 원주율을 생각하며//사람의 숨결이/수학자의 속눈썹에 닿는다/언젠가 반드시 곡선으로 휘어질 직선의 길이를 상상한다 (김소연 (2013): 《수학자의 아침》, 문학과 지성사, 서울).

58) 창조적인 시인의 작품은 개인의 콤플렉스가 반영되기도 하지만,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59) 김소연, “오디오 e지식, 한국문학 아카이브, 36화, 시인 김소연 편”에서

60) <현자의 장미원>에서 “남자와 여자로부터 둥근 원을 만들라. 그리고 거기에서 사각형을 끌어내고 사각형으로부터 삼각형을 끌어내 하나의 둥근 원을 만들라, 그러면 너는 현자의 돌을 갖게 될 것이다”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b): 앞의 책, p161.

는 초법성향을 통하여 의식으로 침투하여 자아로 하여금 창조성을 실현하도록 이끈다.

무의식의 창조성과 재생의식

이제 필자의 열흘 뒤의 세 번째 꿈을 살펴보면서 무의식의 창조성과 재생의식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나는 많은 도랑이 있는 아주 넓은 밭에 있다.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어떤 의례를 행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 의례를 인도하고 있다. 내 옆에는 나이든 목사 같은 낫선 사람이 있고, 나는 보먼대 같은 곳에 놓여진 큰 종이 혹은 책의 내용을 보면서 성만찬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한다. 종이에 쓰여진 작은 글씨가 너무 많아서 읽기가 어렵다. 옆에 있던 그 남자는 나에게 “왜관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밭의 흙 위에 덮개로 덮여 있는 작은 형상을 가리킨다. 나는 그곳으로 가서 덮개를 제거한다. 거기에는 검은 작은 아이 같은 형상이 누워 있다. 그는 나에게 이 의례를 위해서는 “소년아, 일어나라.”라고 외쳐야 한다고 알려준다. 나는 이 외침이 부활의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랜기간 동안 이 의식을 행하지 않아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잊었나 보다 생각한다.

이 꿈은 성만찬의 의례를 위한 전제 작업이 무엇이며, 이것이 부활의식, 곧 재생의식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 지혜롭고 숙련된 정신은 먼저 왜관을 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왜관은 조선 시대에 왜인들의 숙박, 접대, 교역을 위해 설치되었다. 왜관을 하라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교역이 이루어질 때 의례를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의식과 무의식의 소통과 연결은 모든 의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형식적인 예문을 읽는 것은 소용이 없다. 또한 실제적으로 베일로 덮여 있는 죽은 듯한 검은 형체에게 선언해야 한다. “소년아, 일어나라.” 이 외침은 신약성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가 선언했던 ‘달리다굼(아람어, Talitha kum)’, 즉 ‘작은 소녀아, 일어나라’와 유사한 선언이다. 이는 재생과 치유를 위

한 외침이다. 죽어 있는 소년은 생명력을 잃은 미래의 잠재력과 창조력이라 할 수 있다. 성만찬의 본질은 기능하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은 창조력과 잠재력의 부활 혹은 재생과 관련이 있다.⁶¹⁾

무의식은 창조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듯 보이며, 그 창조성은 재생을 겨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재생을 위한 전제는 무의식과 소통할 수 있는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의식의 태도이다. 무의식의 창조성이 재탄생과정으로 이어지려면, 성만찬 의식에서 인간이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인간 심혼의 변환이 일어나듯, 의식이 무의식에게 적대적이거나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무의식이 펼치는 긴장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주도적으로 무의식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 무의식의 창조성이 죽은 실체의 재생을 목표로 한다면, 그 창조성은 신비의식과 재생의식으로 간주되는 모든 종교의례의 근본적 체계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꿈에서 제시된 미사(혹은 성만찬)의 신비는 가톨릭의 전통에 따라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환하는 것⁶²⁾이며, 변환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신과 연합하여 일체를 체험함으로써 신의 자녀라는 인격의 속성을 부여받는다. “이런 미사(성만찬)의 목적은 일종의 신비적 관여, 혹은 사제와 신도가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심혼이 그리스도와 동화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형상을 우리의 심혼 속에 내면화하는 것이다. 미사(성만찬)에서 일어나는 것은 신의 변환인 동시에 우리 심혼의 변환이다.”⁶³⁾ 미사는 변환의식의 단계적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집약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미사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기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신비스런 과정과 연결되고, 신의 변환이 인간 영역에서 일어난다. 신의 헌신은 사랑의 행위이지만, 인간으로 피흘리는 고통의 죽음이기에, 십자가의

61)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꿈은 종교의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구하는 듯 보인다. 폰 프란츠가 종교와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를 경청할 가치가 있다. “민족학과 역사는 종교가 파괴되거나 쇠퇴하고, 경직된 민족은 생존 가능성을 상실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런 이유로 오늘날 기독교의 주요 사상이 다시 한번 무의식적 정신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삶과 관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되었다” Von Franz ML (1999): *Archetypal Dimensions of the Psyche*, Shambhala, Boston and London, p386.

62) 가톨릭은 화체설을 주장하며 개신교는 공체설, 또는 성령임재설을 주장한다.

63)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8): C.G. 융 기본저작집 제4권, 《인간의 상과 신의 상》, 숲, 서울, p262.

죽음은 변화의 전제로서 불가피하다. 변환은 우선 죽은 실체의 재생이며, 그다음의 본질적인 변화는 영화(靈化, Vergeistigung)이다.”⁶⁴⁾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 인간 영혼의 변환과 신의 변환의 미사의식 속에서 창조적 재생이 일어난다.

우리는 여기에서 창조성의 전제조건이 죽음과 파괴임을 발견할 수 있다. 신의 재탄생을 위해 파괴(죽음)는 필수적이다. 창조와 파괴는 대극의 한 쌍이며, 원형의 다른 두 국면이다. 무의식의 창조행위가 발현될 때 창조성과 파괴성 모두가 수반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파괴 없이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하나의 새로운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특정 이전 조건을 파괴해야만 한다. 가장 합성적인 창조는 필연적으로 파괴 행위이기도 하다. ... 심리학적으로 그것을(시바신이 여러 팔로 하는 행위) 지켜본다면, 창조적인 개인의 삶은 어느 정도 파괴, 심지어 자기 파괴를 포함한다.”⁶⁵⁾

종종 피분석자들은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거나, 홍수 혹은 화재로 인하여 모든 마을이 폐허가 되는 꿈을 보고하곤 한다. 꿈속에서 꿈의 자아가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거나 그 붕괴 속에 휩쓸리지 않았다면, 이런 지진과 홍수는 무의식의 격동으로 기존의 정신적 토대를 파괴함으로써 재생을 위한 목적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세계관으로 더이상 삶을 지탱할 수 없고 기존체제는 더 이상 자아에게 유효하지 않음을 너무나 강력하게 제시하는 자연의 처방이다. 따라서 창조를 위한 파괴는 불가피하다. 파괴는 위험한 순간임과 동시에 창조의 때이다.

위의 꿈에서 제시한 들판의 흙 위에 죽은 소년은 모성적 토대 위에 죽어 있는 젊은 신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소아시아와 시리아에서는 모성신 키벨레(Kybele)의 제의가 중심에 있었다. 이 키벨레는 영원한 소년의 원형인 그녀의 아들 아티스(Attis)가 한 님프와 사랑에 빠졌을 때 질투심으로 그를 광란으로 몰아넣어 전나무 아래서 자신을 거세하게 했다. 어떤 판본에는 그가 죽은 뒤 스스로 전나무로 변했다. 다른 이본에는 키벨레의 연인인 전쟁의 신 아레스가 이 젊은 신을 박해하였다. 모성신과 모성신의 아니무스는 젊은 신을 죽이거나 거세한다. 키벨레 숭배가 있는 곳에서는 아티스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봄

64)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역) (2008): 앞의 책, p189.

65) Jung CG, Jarret LJ (1998): *Jung's Seminar on Nietzsche's Zarathunstra*,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39.

축제가 열렸다. 이 봄축제에서는 전나무 꼭대기에 아티스 초상을 매달고 행진을 했다. 아티스는 어머니 나무에 매달려 있으며, 이는 인간 이전의 형태로 퇴행하여 나무 신이 되었다”⁶⁶⁾고 할 수 있다. 이는 스스로 살아있는 단독자가 아니라 기생하는 존재이다. 이것은 모성 콤플렉스에 유착된 영원한 소년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생명이자 그 토대에 뿌리는 내리는 나무로 변하는 것은 젊은 신의 부활 과정으로 창조력과 생명력의 재생(복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모성신과의 결합으로 집단정신의 지배자인 새로운 정신 원리(새로운 신상)로 부상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 신을 대체하는 것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무의식에는 창조성이 담지되어 있고, “창조적 과정은 여성적 특성을 지니며,”⁶⁷⁾ 융합 혹은 에로스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짐작할 수 있다.

20-30대 젊은 내담자들을 분석할 때 어느 때보다 고도로 주의를 집중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남은 긴 생애를 살아내야 하고, 분석가는 그들의 운명에 개입하며 작은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젊은이가 영원한 소년의 이미지를 지닌 경우나 극도로 내향적인 젊은이에게는 단지 외부세계 사회적 적응을 목표로 하는 일반적이고 상식적 수준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의식의 자료를 통하여 그 안에 내재된 창조성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모색하곤 한다. 30대 중반의 한 남성 내담자는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을 실행하는 꿈을 꾸고 충격을 받았다. 이 남성은 대단히 감수성이 발달한 사람이었고, 직장 생활에서 적응문제와 아내와의 약간의 갈등 관계가 있었다.⁶⁸⁾ 이 꿈은 어머니상과의 결합이 이 남성에게 의존적으로 퇴행하거나 어머니 세계에 부착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정신원리로 다시 부상하고, 영원한 소년이 지닌 창조력을 보다 의식적으로 재생하는 것임을 일러주었다.

어머니의 품에서 죽어 있는 젊은 신은 부활의식(성만찬)에서 다시 태어나고, 창조성을 복원해야 한다. 그리하여 낡은 아버지 세계를 넘어서 새로운 정신의 지배자로 재탄생한다. 첫 번째 꿈에서 간과하고 버리고자 했던 아이의 그림책은

66) Von Franz ML, 홍숙기(역) (2017): 《영원한 소년과 창조성》, 한국융연구원, 서울, pp165-166. 이는 나무에 매달린 그리스도와 유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67) Jung CG (1971): Ibid, para159.

68) 사례와 꿈을 인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피분석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사례와 꿈에 대하여 피분석자에게 서명 동의서를 받았으며 저자가 보관하고 있다.

죽어 생명력을 잃은 검은 작은 아이와 유사한 미래의 잠재력과 창조성을 담지하고 짐작할 수 있다. 무의식은 열등하고, 유치한, 버리고 묻혀 있는 창조력의 화신인 아이를 재생시키는 것이야말로 창조성을 실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무의식의 창조성과 개성화

무의식은 창조적 특성을 지니며, 그 창조성은 개성화를 지향한다. 다른 말로 하면, 무의식의 창조성은 자기실현의 과정을 추동한다. 세 번째 꿈을 끈 며칠 뒤에서 창조성과 개성화의 관계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한 남성 미술생 웨프가 요리하는 것을 시연한다. 그는 다양한 음식 재료를 조개 껍데기 안에 넣고 음식을 만든다. 나는 그가 보여준 요리를 만들어야만 한다. 7개의 조개 껍데기 안에 3-4개의 작은 둥근 씨앗 같은 것을 비슷한 중량으로 넣고, 다른 재료들을 함께 넣는다. 내가 먹기 위해 또 다른 조개 껍데기 안에 나머지 재료들을 집어넣는다.

최고의 요리사로 등장하는 남성상은 창조적 본성을 지닌 안내자로서 자기(Self)의 상이라 할 수 있다. 요리사는 꿈의 자아로 하여금 그가 시연한 요리를 만들도록 안내하고 있다. 조개껍데기는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일종의 용기이다. 이 용기 안에 둥근 3-4개의 씨앗을 먼저 담는다. 집단적 무의식에는 셀 수 없는 잠재력과 창조적 충동을 대변하는 씨앗들(마치 수많은 별들이 발광하며 별무리를 짓는 것처럼)이 있으며,⁶⁹⁾ 그것을 비슷한 중량으로 고르게 배열한다. 많은 씨앗들 중에 몇 개 씨앗을 고르게 배열하는 작업은 의식화, 곧 창조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내용을 합성하여 하나의 용기에 담아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창조성의 특성이다. 그런데 7개의 요리를 만들고 나머지 1개의 요리는 꿈의 자아가 먹기 위해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일곱과 여덟의 문제가 발생한다. “숫자 7은 한 주의 일곱 날, 일곱

69)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은 복수의 상이지만 동시에 단일한 본질을 지닌 것처럼 보이며, 무질서하게 잠복해있는 씨앗을 닮아 있다.

음계, 연금술에서 일곱 행성으로 이루어지는 일곱 단계의 리듬과 발전과 연결된다. 또한 일곱은 달의 순환 주기로 살아있는 존재의 성장, 변환, 여성적인 변환 주기와 관련한다. 일곱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진화적 발전 수이자 신의 창조적 완성을 표상하는 수이기도 하다. 숫자 7이 그림이나 꿈에서 나타날 때마다 정신적인 발달 또는 변환 가능성과 필요가 활성화되었다는 것, 좀 더 높은 의식성의 방향, 즉 개성화(individuation)로의 발달로 나아가려 한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⁷⁰⁾ 일곱이 개인과 집단의 정신 발달의 가능성이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한다면, 여덟은 개인과 집단의 정신 발달의 목표라 할 수 있다. “7과 1의 합으로서 여덟은 일곱 단계의 발달의 완성이며, 내적 발달의 결과이다.”⁷¹⁾ 여덟은 보다 분화된 전체성을 표상한다. 일곱을 넘어서 여덟 개를 만드는 창조적 과정은 전체성을 향한 개성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덟을 통하여 표현되는 개성화 과정은 객체 정신 안에서 어떤 목표를 향한 정신과정, 즉 자기실현으로 이끈다. 이는 개인의 숙명과 목적, 살아있는 존재에 의미를 생성한다.

자기의 상이라 할 수 있는 요리사는 꿈의 자아로 하여금 창조성을 실현하도록 그 내용을 안내한다. 이는 무의식이 의식을 통해 자신의 창조성을 실현해가도록 추동함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 창조적 과정에서 꿈의 자아는 자신이 동화할 수 있는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여덟 개의 요리를 만든다. 무의식의 창조는 일곱 개를 제시한다면, 의식의 창조는 여덟 개를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서 연금술의 셋과 넷의 문제와 유사한 일곱과 여덟의 문제가 제기된다.⁷²⁾ 3세기 연금술사로 추정되는 마리아 예언자(Maria Prophetissa)는 “하나는 둘이 되고, 둘은 셋이 되고, 셋으로부터는 넷인 하나가 생겨난다”고 진술한다. 이는 연금술의 핵심적인 원리이다. 여기에서 넷 혹은 여덟은 열등한 것, 악을 포함한 합성을 통한 전체성을 의미한다. 셋이 남성적인 것, 부성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넷 또는 여덟은 남성적인 것에 배제된 여성적인 것, 모성적인 것, 육체적인 여성원리이며,⁷³⁾ 남성 삼위에서 여성원리가 포함된 사위로 나아가는 전체

70) 압트 테오도르, 이유경(역) (2008): 《융심리학적 그림해석》, 분석심리학 연구소, 서울, pp141-147. 김택규 (2019): “요한계시록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주요 환상을 중심으로”, 《심성연구》, 34(2), p113.

71) 압트 테오도르, 이유경(역) (2008): 앞의 책, pp147-148.

72)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2b): 앞의 책, pp198-207.

73)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2b): 앞의 책, p39.

성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하나는 무의식 전체(혹은 무의식적 동일시로 인한 미분화 상태)이고, 둘은 대극의 갈등과 충돌이며, 셋은 가능한 해결, 혹은 제3의 초월적 기능하며, 넷으로서 하나는 변환된 의식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는 개성화 과정과 일치한다. 창조성과 관련한 일곱과 여덟의 문제는 전체성을 실현해가려는 개성화의 충동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무의식이 창조성을 통하여 개성화 과정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정신 치료 과정에서 전체성, 즉 정신적 발전의 목표를 이르는데 필수적으로 직면하는 물음에 맞닥뜨린다. 이 전체성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열등한 것, 네 번째 요소를 합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개체와 집단에 있어서 네 번째 혹은 여덟 번째 요소로 대변되는 열등하고, 악한 것을 동화하는 과정은 전인격을 동원해야 하는 엄청난 작업이다. 분석 초기에 피분석자들이 종종 아름답고 이상적인 꿈들을 보고한다. 피분석자에게 격려와 위로, 삶의 전망을 확장시키기 위한 무의식의 의도일 것이다. 그런데 몇 회기가 지나면서 꿈은 실제적으로 피분석자의 열등한 그림자를 들추기 시작한다. 이때 피분석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볼 때 당황하며 심지어 충격을 받는다. 그 그림자가 심하게 건드려지면, 피분석자는 견디지 못하고 분석을 중단하기도 한다. 보기 싫은 열등하고 악한 것을 자신 안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쾌하고 참기 어려운 일이다. 통상적으로 개성화를 위해 그림자와의 대결은 불가피하며, 이 대극의 충돌과 긴장은 하나의 숙명이며, 이로써 전체성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무의식이 창조성을 발현할 때 수많은 잠재력과 창조적 충동이 담긴 씨앗을 언뜻 보게 된다. 이때 수많은 잠재력의 씨앗을 적당한 중량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면(위의 꿈에서처럼), 의식의 문턱값을 넘지 못하고 다시 무의식으로 가라앉는다. 무의식이 보내는 꿈과 환상, 공상에 주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의식화 작업, 즉 창조행위를 시도하려할 때만이, 그 창조성은 구체화된다. 이런 의식화 작업은 낚시나 그물질의 꿈과 유사하다.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 올림으로써 무의식의 창조적 내용을 의식으로 끌어올리고, 포착된 창조적 내용물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요리하여 먹을 때(동화할 때), 비로소 창조성이 우리의 정신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 네 번째 꿈을 통하여 무의식은 그 자신의 창조를 넘어 의식을 통하여 창조가 실현되길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무의식의 창조성은 의식을 통하여 구현되며, 의식은 무의식을 창조성을 통하여 개성화를 실현해간다.

나오는 말: 두 번째 창조자로서 인간

네 개의 일련의 꿈을 통하여 본 창조성은 무한한 잠재력과 창조력의 모판인 무의식에서 기원하며, 무의식의 창조적 특성은 정신과 물질의 ‘준거 틀을 넘어 서기’, 원형의 초법성향으로 드러난다. 무의식의 창조성이 겨냥하는 것은 재생으로, 집단과 개인 안에서 죽은 신의 갱신, 일종의 자기 원형상의 갱신을 추동하며, 이런 창조성은 파괴를 전제하거나 동반한다. 궁극적으로 무의식의 창조성은 전체정신의 목표이자 전체가 되고자 하는 개성화를 지향하며, 의식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며, 무의식은 의식을 통하여 변환하고자 한다.

마지막 꿈에서 미지의 요리사의 일곱 개의 창조는 구약성서 창세기에서 신이 일곱 번째 날 안식하면서 비로소 창조를 완성한 것과 연결한다. 여덟 번째의 창조는 신의 창조의 일곱 날을 넘어서 다시 첫날로서 인간에 의한 창조를 시사한다. 인간은 여기에서 두 번째 창조자가 된다. 창세기의 두 번째 창조기사는 질료로 창조된 인간이 모든 짐승과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인간이 창조성을 발현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이런 명명화는 사물을 의식화하는 일이며, 창조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무의식의 창조성은 의식화이며, 이 의식화는 고통을 수반한다. 창조성은 파괴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의식에게 부과된 과제는 무의식의 창조성을 실현하여 무의식 자체가 실현하려는 충동을 구체화하는 일이다. 무의식의 창조성은 한 개인의 개성화와 문명의 전환을 추동한다. 무의식의 창조성을 실현하는 일은 두 번째 창조자로서 인간의 숙명인 듯 보인다.

3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어떤 성취를 경험했지만,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가 막연히 빠져있고, 나의 인생 속에 또 다른 무언가가 펼쳐야 할 것 같은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다. 최근에 그는 필자의 연구소의 홈페이지 문구, “나의 생애는 무의식이 그 자신을 실현한 역사이다”⁷⁴⁾를 보고, 충동적으로 전화를 걸었고 분석을 신청하였다.⁷⁵⁾ 그는 이 문구가 이상하게 그 자신을 끌어당겼다고 고백하였다. 무의식이 실현하려는 창조적 충동에 이끌린 것이다. C.G. 융의 말을 다음

74) 야훼 아니엘라(편), 이부영(역) (2012): 《C.G.Jung의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집문당, 서울, p19.

75) 사례를 인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피분석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사례에 대하여 피분석자에게 서명 동의서를 받았고, 필자가 보관하고 있다.

과 같이 바꾸고자 한다.

“무의식은 그 어둠 속에 담지한 창조성을 의식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김덕규 (2019): “요한계시록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주요 환상을 중심으로”, 《심성연구》, 34(2).
- 김소연 (2013): 《수학자의 아침》, 문학과 지성사, 서울.
- 김영식 (2005): 《주희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서울.
- 노자, 황병국(역) (2003): 《노자도덕경》, 범우사, 서울.
- 신화아카데미 (2001): 《세계의 창조신화》, 동방미디어, 서울.
- 아리스토텔레스, 박문재(역) (2021):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현대지성사, 서울.
- 압트 테오도르, 이유경(역) (2008): 《융심리학적 그림해석》, 분석심리학 연구소, 서울.
- 야훼 아니엘라(편), 이부영(역) (2012): 《C.G. Jung의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집문당, 서울.
- 어거스틴, 선한용(역) (2003): 《성어거스틴의 고백록》, 대한기독교서회, 서울.
- 이부영 (2003):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파주.
- 플라톤, 천병희(역) (2019): 플라톤 전집 V: 테아이테토스, 필레보스, 티마이오스, 크리아 티아스, 파르메니데스》, 도서출판 숲, 파주.
- _____, 천병희(역) (2020): 《플라톤 전집 VI: 법률》, 숲, 파주.
- _____, 이환(역) (2015): 《국가론》, 돌을새김, 서울.
- 헤시오도스 지음, 김원익(역) (2022): 《신통기》, 민음사, 서울.
- Eliade M (1974): *God, Goddess, and Myths of Creation: A Thematic Source Book of the History of Religions Part 1 of From Primitive to Zen*, Harper & Row, New York.
-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a): C.G. 융 기본저작집 제2권, “정신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 고찰”, 《원형과 무의식》, 숲, 서울.
- _____,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b): C.G. 융 기본저작집 제5권,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숲, 서울.
- _____,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4): C.G. 융 기본저작집 제9권, “심리학과 시문학”, 《인간과 문화》, 숲, 서울.
- _____,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8): C.G. 융 기본저작집 제4권, 《인간의 상과 신의 상》, 숲, 서울.
- _____, Wilhelm R, 이유경(역) (2014): 《황금꽃의 비밀》, 문학동네, 파주.
- _____, (1969): CW 8,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Princeton University

- Press, Princeton.
- _____ (1971): CW 15, *The Spirit in Man, Art, and Literat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75): *C.G. Jung Letters*, Vol 2,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Jarret LJ (1998): *Jung's Seminar on Nietzsche's Zarathunstra*,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Niu W, Sternberg RJ (2006): “*The Philosophical Roots of Western and Eastern Conceptions of Creativity*”, *Journal of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Psychology*, Vol.26. Pace University, NY.
- Von Franz ML, 홍숙기(역) (2017): 《영원한 소년과 창조성》, 한국융연구원, 서울.
- _____, 김현진(역) (2019): 《창조신화》, 한국융연구원, 서울.
- Von Franz ML (1988): *Psyche and Matter*, Shambhala Publication, Boston.
- _____ (1999): *Archetypal Dimensions of the Psyche*, Shambhala, Boston and London.
- Weiner RP (2000): *Creativity and Beyond: Cultures, Values, and Chang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Sim-seong Yeon-gu 2023, 38 : 2

〈ABSTRACT〉

**A Consideration on Creativity of the Unconscious:
Focusing on a Series of Dreams**

Dukkyu Kim *

Humanity has faced destruction(chaos) due to catastrophes (Covid-19, war, earthquake) and awaits a new restoration. For civilizations and individuals, creation or creativity is essential to psychic development. Creativity is the driving force that renews an individual when a new stance and attitude of consciousness or a new adaptation to reality is desperately needed in the depth of the human mind. This article is the result of an exploration of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creativity presented by a series of four dreams. First, the definition and form of creativity were explored in the context of religion, mythology, and history of Eastern and Western. While Western mythology refers to creation or creativity originating from God, ancient China viewed creativity as express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yin and yang, the movement of Tao. In East and West, the form of creation is divided into creation from nothing, creation from matter, and creation through dissolution from the matrix, which psychologically suggests that creativity or creation originates from the unconscious, the seedbed of infinite potential and creative power. Next, with insights from the second dream, the characteristics of creativity were discussed. Creativity occurs through transcendent function and 'going beyond the frame of reference,' that is, 'transgressivity.' Third, the nature of creativity was explored as the creativity of the unconscious aims for regeneration and drives the renewal of Self archetypal images within the collective and individuals. Ultimately, the creativity of the unconscious is the goal of the whole psyche and aims for individuation to become the whole. Realizing the creativity of the unconscious is the fate of humans as the second creator.

KEYWORDS : Creativity; Creation; The Unconscious; Archetype; Transcendent function; Transgressivity; Renewal; Individuation.

**The Center for Jungian Psychology, Seoul, Korea*